平生敎育學硏究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017, Vol.23, No.2 pp.1-29

Q방법론을 활용한 평생교육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인식 유형 분석*

이은영(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사무국장)†
박상옥(공주대학교, 부교수)‡

요 약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다양한 이념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평생교육을 정의(定議), 목적, 책임의 주체, 실천의 주체에 따라서 달리 인식한다. 이에 본 연구는 평생교육 참여주체인 성인학습자는 평생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국가적 이해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동의수준을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다.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인식은 어떻게 유형화되는지, 개념요소(정의, 목적, 책임성, 주체) 각각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Q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식유형은 5개 유형으로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의미 추구 강조형, 전 생애에 걸친 통합교육의 개인책임 강조형, 목적 추구를 위한 교육 강조형, 삶의 의미 추구를 위한 개인책임 강조형, 삶의 의미 추구를 위한 공공책임 강조형이다. 개념요소 각각에 대한 인식 중, 정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통합적 의미로 인식하고 있으나, 법규상은 사회교육(학교교육을 제외하는 교육)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 국가가 성인학습자의 통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삶을 의미 있게 살기위한 교육에 목적을 두는 학습사회론적 가치를 추구하며, 국가 사회를 위한 교육인지 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인지에 대한 고민만큼 책임성은 공공재와 사유재가 견제와 협력 관계로 인식, 인간은 자발적 학습능력과 내재된 학습목표를 갖는 학습주의에 비중을 두는 특징을 보였다.

주제어: 평생교육 개념, 학습사회론, 학습경제론, 공공재, 사유재, 교육주의, 학습주의

Ⅰ. 들어가며

평생교육은 지금껏 다양한 이념을 바탕으로 학계, 학회, 정책참여자, 활동가 등 나름의 전문가들과 여러 논쟁 속에서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문정립

---

* 본 논문은 이은영의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주 저 자: 이은영(2841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14, ley0810@hanmail.net)
‡ 교신저자: 박상옥(3258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sangok@kongju.ac.kr)

과 국가정책, 현장에서의 실천까지 각 영역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가 학계만의 논쟁은 아닌지, 공급자 중심의 고민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과 동시에 과연 참여주체인 성인학습자는 평생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의문 또한 갖게 된다. 학문의 개념이나 정체성 형성은 소위 전문가로 일컫는 학자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사회구성원의 생각들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석의 중요성이 있다.

교육은 역사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회의 시대적 조건이 반영되며, 사람들의 가치관과 욕망도 반영된다. 어떠한 사회에서나 교육적 작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개인은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 자체의 존속마저도 불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교육이란 사회의 근원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김도수, 2010: 5). 교육은 그 제도나 교육과정 모두가 한 사회가 근거하고 있고 또한 지향하고 있는 이념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김신일, 1984; 2012: 61). 그런 의미에서 뒤르켐은 교육이 극히 중요한 사회이념(ideology)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평생교육이 등장한 배경 역시 사회적 이념이 반영된 사회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학교교육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고, 말 그대로 평생, 죽을 때까지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김동위, 1997: 23). 학교 교육제도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학교비판론(탈학교론)이 등장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민주화 열망이 고조되어 평등의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으로 평등화의 촉진자로서 교육기능을 중시하는 교육기회균등론이 등장하면서 교육기회확대, 보상교육, 평생교육화 정책이 제시되었다. UNESCO는 당시의 혼란을 교육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차갑부, 2012: 29).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73년 평생교육 발전세미나를 개최하여 평생교육의 이념과 전략을 주제로 삼았다. 'lifelong education' 을 '평생교육'으로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평생교육이 도입되었다. 평생교육 관련 내용을 헌법(1980년 10월 27일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 제29조)에 명시한 최초의 국가가 될 정도로 평생교육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평생교육 분야의 성장과 더불어 평생교육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도 높아졌고 다양한 학문적 배경, 활동 경험, 실천의 장, 가치관과 교육이념 등을 가진 사람들이 '평생교육학'의 우산 밑에 모이게 되었다(오혁진, 2009: 275). 반면 평생교육학의 정체성, 고유한 관점, 탐구영역, 연구방법에 대한 우려도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의, 개념, 이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적인 고민을 지적한다. 이러한 정체성 혼란의 중심에는 '평생교육' 개념의 모호성과 '사회교육'과의 복잡한 관계가 큰 몫을 한다. 평생교육학의 성립이 결국은 '평생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더불어 시작된다고 할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학의 정체성 혼미는 결국 '평생교육'개념의 혼미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오혁진, 2009: 281).

평생교육이 보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시점에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점검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기위해 Q방법론을 이용하여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Q방법론에서는 한 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 생각, 이미지 등의 반응을 한 개인의 행위적 총체로 보고 개인 내의 의미성의 차이를 측정하여 그 현상을 이해하게 된다(김흥규, 2008: 80). 즉 인간의 자결적주관성(Operant Subjectivity)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인간의 공통적인 관점을 추출할 수 있다. 지금껏 평생교육에 관련된 인식연구는 학습자(참여자)의 참여 동기 및 요구, 참여기회, 효능감에 대한 인식분석에 집중되어 있고, 평생교육종사자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및 직업(직무)적 이미지 인식분석이 그 뒤를 잇고 있다. Q방법론으로 평생교육 관련 인식연구 또한 특정대상(소외계층, 평생교육 종사자 등)과 특정과정(학교, 공공기관, 도서관, 원격대학, 대학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관 등)에 대한 인식분석 연구에 한하여 진행되었다.

평생교육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는 학교교육과는 다른 확대된 의미와 보완점을 갖고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평생교육의 이념과 가치를 체계화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실천을 전개한지도 어느덧 반세기를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인 노력에 성인학습자는 과연 평생교육을 어떠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평생교육을 인식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된다. 정의(定議)를 중심으로 이해하거나 목적을 핵심으로 인식할 수도 있으며, 책임의 주체와 실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달리 인식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평생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인식되어 있는가의 연구는 국가적 이해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동의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그 작은 노력으로 본 연구는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학습자에게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분류로 형성되는 유형과 특징을 분석해보고, 그 안에 나타나는 평생교육 개념요소(정의, 목적, 책임성, 주체) 각각에 대한 인식 또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Ⅱ. 평생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

1. 평생교육과 사회교육

우리나라 평생교육 분야의 개념 발달과정에서 매우 특이한 양상은 '평생교육'과 '사회교육' 사이의 개념적 혼란이다(오혁진, 2011: 120). 사회교육이란 간단히 주로 학교교육의 혜택을 덜

받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의도적, 조직적으로 실시하는 비정규의 학습지도활동이라고 정의한다(정지웅, 1997: 2).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포섭하는 상위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정지웅・김지자, 1986: 9; 김종서 외, 1987: 24).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 '사회교육' 용어를 사용해야 했던 경우에도 '평생교육'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개념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한국 평생교육 분야의 현실이 되었으며 이는 깊은 학문적 논의 없이 다소 급격한 변화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오히려 개념의 모호성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오혁진, 2011: 120). 평생교육이라는 용어에 부여하는 의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평생교육이라는 용어에 부여하는 의미에 대한 논란은 이 용어가 사용되는 한 중단될 수 없을 것이다(윤여각, 2015: 32).

사회교육은 교육과 사회발전이라는 두 테마가 교차하는 일종의 '실천의 영역'이었다. '소외된 학교 밖 교육'이라는 영역을 배경으로 그 안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개발과 계몽'이라는 실천적 관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거의 모든 나라의 사회교육 영역은 그야 말로 사회개혁을 위한 운동의 연속선상에 있었다(한숭희, 1998; 2009: 3).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교육은 실천영역에 방점을 찍는 것(예컨대 학교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학교 밖 교육을 통해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평생교육은 교육사태에 대한 관점과 이해방식(예컨대 학습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평생에 걸친 학습추진)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은 일종의 내용과 형식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 사회교육이 관점이나 고유의 접근법을 결여한 '영역'의 개념이었다면, 평생교육은 모든 교육활동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 개념 정의 유형별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의 개념 사례

구분	평생교육의 개념 사례	사회교육의 개념 사례
기술적 정의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교육의 수평적・수직적 통합	일상적인 사회적 삶 속의 교육, 사회인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교육, 생활교육
조작적 정의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평생교육법)	소외계층을 위한 학교교육 보상교육, 사회변혁을 위한 비판적 성인교육
강령적 정의	안드라고지로서의 교육, 학습자 중심 교육,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	학교교육을 제외한 조직적인 교육활동

* 위의 표는 오혁진(2009: 280-281)의 자료를 필자가 통합한 것.

평생교육은 많은 의미와 개념의 혼란 속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이처럼 사회교육과의 이론적, 실천적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어느 순간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또 다른 학문영역과도 한 집살이를 시작하였다. 안타깝게도 평생교육이 인적자원개발과 같은 '거대담론과의 결별'(한숭희, 2002: 221)을 선언하기에도 너무 늦어버린 현실을 인정하고, 더욱더 적극적인 개념적 질문을 통해 자기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이희수・안동윤, 2007: 78).

현재 평생교육학 분야에서는 '평생교육'의 이름으로 두 가지 다른 방향의 학문정립을 위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평생교육의 이름 안에서 실제로 학교교육을 포함하여 새로운 교육학을 정립하려는 노력이다. 이는 평생교육의 기술적 정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학습 개념을 중심으로 순수학문을 정립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둘째는 전통적인 사회교육의 영역을 다루는 것이다. 학교교육을 제외한 학교 밖의 다양한 응용 교육이 성인학습자 수준에서 인식하는 사회교육의 대부분이다. 이것은 평생교육학을 하나의 고유한 순수학문으로 정립하느냐에 대한 관심과 상관없이 사회교육학 자체를 실천학문 또는 응용학문으로 정립코자하는 접근방식이다.

2. 학습사회론과 학습경제론 : 존재를 위한 학습과 순환교육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평생교육은 이제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로서 일상화 되어가고 있다(이희수, 2009: 95). 지향하는 항로는 다르지만 모두가 동일한 평생학습 깃발아래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 모델, 자아성취를 위한 평생학습 모델,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 모델, 고용을 위한 평생학습 모델로 유형화되기도 한다(Schuetze & Casey, 2006 : 282-283). 더불어 기존의 연구는 국제기구의 맥락적 접근, 세대별 접근, 유형론적 접근으로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이희수, 2009: 97).

UNESCO 평생교육이 주로 교육학자의 전유물이라고 본다면, OECD의 순환교육은 경제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UNESCO는 학습에 대한 인간주의적 비전에 종속시키려고 일관되게 노력한 인간주의적 비전의 상징이었다. OECD는 교육의 경제적 측면으로부터 사회적 측면으로 관심을 전환하여 양자의 연계를 분석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평생교육의 양대 산맥인 UNESCO의 학습사회론의 이상향과 OECD의 교육시장에 대한 학습경제론의 접근법을 활용해온 것이 현실이다(김성길, 2004: 56).

UNESCO는 평생학습능력의 증진은 개인의 자아실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개인의 평생학습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교육제도의 통합이 필수적이며,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은 기존의 지역사회를 이상적인 학습공동체로 가꾸어 감으로써 가능하다는 논

리를 담고 있다(김성길, 2004: 61). 더 나아가 인간을 인간자체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empowerment), 삶의 현장이나 교육 현장에서 인간을 인간개체로 본질성을 가지면서 사회와 호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로 안내하는 것이다(이화식, 2013: 408).

OECD가 주창한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은 개인의 발달, 사회적 결속,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성길, 2004: 61).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의 기초를 강화하고, 학습과 일의 연계, 평생학습과 관련한 책임과 역할 제고,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 교육훈련 제공 등이 전략적으로 강조되었다. 개인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국가는 평생학습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응집력을 향상시키는 공동의 가치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김성길, 2004: 62).

<표 2> UNESCO와 OECD의 평생교육전략 비교

구분	UNESCO	OECD
이념적 지향점	• 주요이념 : 이상주의 학습사회론, 인간중심적 평생교육론 • 핵심모토 : 모든 이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All) • 핵심주제: 존재를 위한 학습 (Learning to Be) • 주요회의: 성인교육 국제회의	• 주요이념 : 경제주의 학습경제론, 전략적 인간자원개발론 • 핵심모토 :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 (Lifelong Learning for All) • 핵심주제 : 순환교육 Recurrent Education) • 주요회의: OECD 교육장관회의
관심영역	1. 교육기회의 확장 : 기초교육→계속교육 2. 교육내용/주도권의 확장 : 교수자 공급중심→학습자 선택중심 3. 교수•학습방법의 확장 : 형식교육→비형식•무형식교육	1.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2.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개발 3. 일과 학습의 연계모델 4. 투자로서의 평생학습정책
정책방향 & 추진활동	1. 초기 기초교육 및 문해교육 2. 직업교육으로의 확대 3.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관화 4.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	1. 교육성장정책 2. 교육발전정책 3. 순환교육 모형 4. 모든 이를 위한 생애능력개발 투자확대

*출처 : 김성길(2004: 63)의 일부.

UNESCO와 OECD는 모두 평생교육이 개인과 사회 발전에 필수 요소로 여기며 기존의 교육체제로부터 벗어나 수직·수평의 확대를 말한다. 그러면서도 UNESCO는 전인적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이상주의적 학습사회 건설을 추구하고, OECD는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직업능력신장을 위한 경제 주의적 학습경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의 우리나라 평생교육전략은 UNESCO와 OECD의 혼합된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3. 평생교육의 책임성 : 공공재와 사유재

최근에 국가교육제도를 성격에 따라 복지주의와 신자유주의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으나 분류가 너무 단순하다. 그린(Andy Green)은 프랑스, 영국, 독일을 선정하여, 각국의 평생교육제도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정리하였다. 그는 각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평생학습의 관리 및 재정확보의 특징에 따라, 프랑스의 평생교육제도는 국가주도형(state-led model), 영국은 시장주도형(market-led model), 독일은 사회협력모형(social partnership model)으로 명명했다. 국가주도형(state-led model)은 평생학습기회의 제공과 그에 필요한 재정 공급의 중심역할을 국가가 담당한다. 이모형에서는 시장원리는 채택하지 않는데, 재정투자를 줄이고 불평등을 불러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주도형(market-led model)은 평생학습의 일차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스스로 기회를 찾고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관련조직과 기관의 역할조정 정도에 머무른다. 사회협력모형(social partnership model)은 평생학습에 관련이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이다. 평등한 대표성, 정보의 공유, 절차의 적절성이 사회적 합의와 협력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에 핵심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는 유럽 국가들을 분석·비교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다른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평생교육제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김신일이 작성한 모형을 설명한다(김종서 외, 2014: 177-178). 교육제도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통제의 수준이고, 다른 하나는 비용부담의 주체이다. 네 유형은 그 특성에 따라 통제모형(강한 통제, 사부담), 사회주의모형(강한 통제, 공부담), 복지모형(약한 통제, 공부담), 시장모형(약한 통제, 사부담)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종서 외, 2014: 178). 따라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평생교육의 경우도 일종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오혁진, 2012: 140).

오늘날의 평생학습은 경제적 이익과 유인가를 추구하는 사적영역의 확대를 위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한숭희, 2003: 2). 이런 점에 관련하여 우리가 유념해야할 부분은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불완전 고용의 문제를 평생학습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 가운데에서 그 평생학습 자체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사유재-다시 말해서 개인부담으로 그 서비스를 구매하고 활용하는 것-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언젠가 혹은 어느 부분에서든 교육 소외자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한숭희, 2003: 4). 시장원리라는 자유주의적 전통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서비스를 사유재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개입주의적 입장에서는 교육서비스를 공공재로 보는 경향이 있다(임해규, 2011: 115). 교육이 본래 공적영역에 속함을 인식함에도 우리의 경우 교육에서 내용적으로는 시장기제가 작동되어 왔고 학교교육

의 보완재가 아닌 대체제로서의 학원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런 현실은 평생교육 교육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사유재로 생각하도록 만든 요인이다(오혁진, 2002: 172-173).

정리하면, 학습사회론은 교육서비스를 공공재로 보는 모든 교육서비스를 공적 영역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반면, 학습경제론은 교육서비스를 사유재로 모든 교육서비스를 시장에서 유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두 입장은 역사와 현실에서 교육서비스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혼재되어 있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대안으로 모색한다. 학습사회론은 더 많은 교육서비스를 공적 영역으로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하며, 학습경제론은 공적 영역의 비효율성을 피하기 위해 시장 기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제도를 확립하고자 한다. 학습사회론은 조건도 한계도 없이 가능한 한 교육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하기를 촉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습경제론은 수익-비용 효율을 따지면서 교육재정투자에 인색한 경향이 있다(임해규, 2011: 118). 교육에서 서비스에 대한 성격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의무교육이나 교육복지는 공공재인 교육서비스로 본다고 해도, 평생교육을 거론함에 있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평생교육 참여자들이 교육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교육서비스에 대한 판단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4. 교육주의와 학습주의 : 교수자 중심과 학습자 중심

교육(敎育)은 가르칠 교(敎)와 기를 육(育)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교육은 인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관심이 있으며,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육성, 조성, 함양, 계발, 교정, 개선, 성숙, 발달, 증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이홍우, 2014: 57). 교육은 학습자가 선(善)한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자(교수자)가 체계적·계획적으로 가르치고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의 개념은 그것을 제공하는 자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차갑부, 2015: 36). 즉 학습활동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는 차원의 중요성에 한하고 있으며, 학습자는 궁극적으로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교육의 객체일 뿐이다(김신일·박부권, 2005: 26). 이러한 가르치는 자 중심의 전통적인 교육관을 '교육주의'로 부른다. 이에 앞으로의 글에서 배우는 자 중심의 교육관을 '학습주의'로 명명한다.

교육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본질적 성격은 학습에 대한 타인의 간섭과 조정이다(김신일, 2012: 478). 가르치는 자는 항상 배우는 자(학습자)를 옳고 가치로운 방향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간섭하고 통제한다. 교육주의에서의 의도의 순수성이란 가르치는 자가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배우는 자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의미한다(박부권, 2002: 8). 가르치는 자의 선의란 교육주의의 출발이다. 가르치는 자의 선

한 의도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간의 권력적 비대칭관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의 전형으로 생각하였던 '가르치는 자 중심의 교육'을 이끌어 온 견인차였다(박부권, 2002: 8). 다시 말해, 가르치는 자(교사)는 맡겨진 과업, 즉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가르침'이라는 과업에 관한 한, 늘 비판적이고 탐구적인 주체임을 깨달아야 한다(Freire, 2007: 55).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개인과 전체를 통합적으로 완성된 존재의 개체로 보았다. 교육주의에서 인간을 백지나 빈 그릇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인간은 적극적인 학습능력과 학습자발성을 갖고 있으며 학습의 목표가 학습자의 삶에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학습주의에서의 교육은 학습을 위한 활동으로 교수자와 학습자는 서로 상호학습을 하며 교육제도 역시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육성·지원하는 열린사회 지향을 전재로 한다. 전통적 교육의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를 활성화 할 수 있고, 교육의 객체로써의 학습이 아니라 교육적 행위의 부재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학습이 가능함을 들고 있다. 학습주의 교육을 더욱더 실천의 전재이유가 되어야하는 근거는 개인 누구도 자신의 학습, 자신의 인간성장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에 대립하여 강제로 교육하거나,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지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김신일·박부권, 2005: 32). 학습의 주체는 나 아닌 어떤 다른 존재일 수가 없다. 이러한 근거로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은 성인학습과 관련된 개념 중 가장 핵심으로 나타난다.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학습 목표, 내용, 방법, 자원의 선정 및 학습과정의 진행에서 학습자가 일차적 책임을 갖는 학습을 말한다(김한별, 2015: 77). 자기주도학습은 교육현장에서 학습자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학습자에 대한 방임으로 나아가게도 하였다(정민승, 2002: 41). 즉 자기주도학습론은 교육자의 역할 축소로, 학습자 방임의 결과를 낳고, 이에 교육실천을 위한 급선무는 능력 있는 교육자(촉진자)를 키워내는 일이라는 사실에 공감한다(정민승, 2002: 42).

성인들을 가르치는 자는 학습할 때 삶에서 실제적인 경험이 어떻게 교과를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만드는지를 알 필요가 있으며, 성인교육의 목적은 지식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범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Lindeman, 2013: 114). 또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느냐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도해야 한다(Brookfield, 2009: 55).

교육은 교수자의 입장에서 가르치고 기르는 행위이고, 학습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배우고, 익히는 행위라 할 수 있다(차갑부, 2015: 39). 지금껏 학습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학습자를 조종하고 억압하는 가르치는 자의 선의가 학습주의가 보는 현재의 교육현실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 본 이유로 교육주의 교육을 배제하고 학습자의 요구와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학습자 중심교육으로 탈바꿈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교육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 인간은 삶의 과정에 언제 어디서나 항상 무언가를 배우며 동시에 스스로가 누군가에 배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즉, 누구나 배우는 자인 동시에 가르치는 자이다. 교육주의 관점은 불합리하다 또는 학습주의 관점만이 대안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수자 중심보다 교육활동의 가치는 학습자 중심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절차

가. Q모집단구성 및 Q표본의 선정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이 전달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인간의 주관성이 전달되는 심리적 전달의 장이 집합체이며, 이를 Q표본이라고 부른다(Brown, 1980; 김순은, 2010: 10). 본 연구에서 Q모집단[1] 구성은 평생교육 관련기관 종사자 5명, 교수자 5명, 학습자 10명으로 실시하였다. Q표본(Q-sample)[2] 수집은 구성된 Q모집단에게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구술형 질문지와 인터뷰, 관련연구문헌의 고찰내용을 참조 추출하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첫 번째 구술형 방법으로 수집된 진술문의 모든 내용을 취합하여 총 165개의 진술문을 개념요소별로 분류하여 유용한 질문을 추출하였다. 두 번째 추출형 방법으로 첫 번째 과정에서 추출된 진술문을 바탕으로 연구 주제와 관련이 모호하거나 무관한 내용을 반복하여 검토 정리하였다. 그 다음 본 연구에서 보고자하는 개념요소별 인식 중, 해당하는 요소에서 부족한 부분을 관련연구문헌을 통하여 보완하고 최종으로 동료 연구자와 지도교수의 자문을 구하여 각 개념요소를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진술문 54개를 최종 Q표본으로 확정하였다. 진술문은 평생교육 정의에 11개(1-11번), 목적(가치)에 18개(12-29번), 책임성(비용)에 11개(30-40번), 주체에 14개(41-54번)으로 구성하였다.

1) Q모집단(Q population)이란 Q연구를 위해 수집된 항목의 집합체를 말한다. 이것은 한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의견의 총체인 통합체(concourse)의 개념과도 동일하다(김홍규, 2008).
2) Q표본(Q-sample)이란 Q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항목을 의미한다. 그것은 보통 수십 개로 구성된 카드 위에 쓰인 진술문일 수도 있으며 기타 다른 Q항목일 수도 있다(김홍규, 2008).

나. P표본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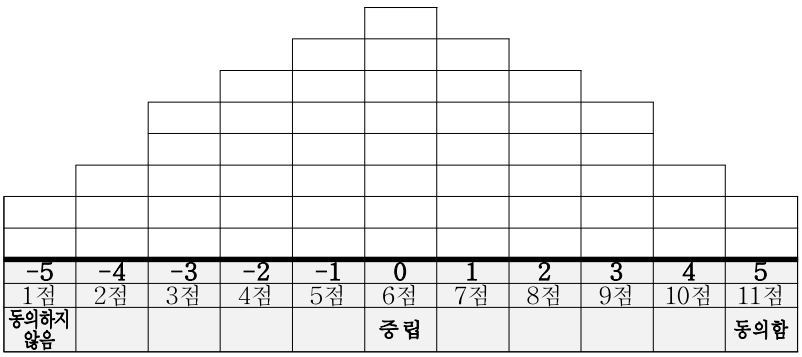
Q방법론에 있어서 Q표본(Q-sample)이 결정되면 다음 절차는 P표본(P-sample)[3]을 구성한다. 본 연구에는 평생교육기관 중 서로 다른 성격의 3기관(지자체산하기관,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민간기관)을 선정하고, 선정기관 운영프로그램 중에 각기 다른 과정의 프로그램 3가지를 선정, 각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학습자 5명을 무작위 선출하는 방법으로 총 45명의 P 표본의 구성하였다.

<표 3> P표본의 특성

구 분	여					남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지자체산하기관	-	2	8	4	-	-	-	1	-	-	15
대학교부설	1	1	8	2	-	1	-	1	-	1	15
민간단체	-	3	10	1	-	-	-	1	-	-	15

다. Q분류 과정

Q분류(Q-sorting)[4]는 연구대상자의 자결적주관성(Operant Subjectivity)을 측정하는 것으로, 개인 내에서 선호도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Q분류를 함에 있어서 연구자는 통상 정규분포의 형태로 분류의 틀을 제시하는 강제배분방식(Forced Distribution)이라고 한다.



[그림 1] Q 표본 분포도

3) P표본(P-sample)은 연구대상자, 참여 응답자, 피험자를 가리킨다.
4) Q분류(Q-sorting)란 한 응답자가 Q표본을 분류하는, 다시 말해 각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이다(김홍규, 2008).

라. Q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은 QUAN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한 Q자료의 점수화는 배열판 분포도에 따라 기록된 진술항목의 번호를 확인하고, 가장 반대하는 경우(-5)를 1점으로 시작하여 2점(-4), 3점(-3), 4점(-2), 5점(-1), 중립 6점(0), 7점(+1), 8점(+2), 9점(+3), 10점(+4), 11점(+5)으로 각각 점수화하였다. 점수화한 자료와 기본정보, 진술문 순으로 코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개념인식 유형

1. 유형의 형성

가. 유형의 구성

QUANL PC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인식에 대한 주관성 조사를 한 결과 5개 유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표 4> 유형 별 아이겐 값(요인고유치) 및 변량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아이겐값	22.3510	2.5145	1.7870	1.5961	1.4094
설명변량	0.4967	0.0559	0.0397	0.0355	0.0313
누적변량	0.4967	0.5526	0.5923	0.6277	0.6591

각 유형별로 설명변량을 보면, 유형1이 49.67%, 유형2가 5.59%, 유형3이 3.97%, 유형4가 3.55%, 유형5가 3.13%로 나타났다. 누적설명변량이 50%를 넘으면 유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김홍규, 1992), 누적설명변량이 65.91%을 넘고 있어 본 연구의 유형 형성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표 5> 유형 간 상관관계 계수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1	1.000	0.695	0.784	0.810	0.653
유형 2	0.695	1.000	0.606	0.705	0.466
유형 3	0.784	0.606	1.000	0.757	0.654
유형 4	0.810	0.705	0.757	1.000	0.652
유형 5	0.653	0.466	0.654	0.652	1.000

각 유형 간 상관관계[5] 계수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유형1과 유형4의 상관관계 계수가 0.810으로 가장 관련성과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2와 유형5의 상관관계 계수가 0.466으로 가장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상관관계 계수가 높은 이유는 평생교육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인식이 많이 보편화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진술문의 성격이 서로 완전히 배타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 그 경계의 모호함이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Q방법에서 요인 간 상관관계는 양적 연구에서의 요인분석 방법과는 달리 각 요인 간의 완전한 독립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유형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므로 상관관계의 높고 낮음은 별다른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김홍규, 2008).

나. 모든 유형에서 나타난 일치 항목 분석

연구의 결과에서 〈표 6〉과 같이 모든 유형에서 일치하고 있는 항목들이 나타났다.

<표 6> 모든 유형의 합의 진술문(±1.00 이상)

진술문	AVERAGE
25.평생교육은 자기개발・자기실현을 위한 교육이다.	1.82
23.평생교육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다.	1.77
44.평생교육은 참여자 스스로의 학습욕구가 가장 중요하다.	1.74
50.평생교육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1.49
2.평생교육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포함하는 모든 교육이다.	1.14
51.평생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 주도해야 한다.	-1.40

모든 유형에서 공통된 동의수준을 보이는 진술문을 정리해보면, 평생교육은 가정교육 학

5)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0.4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0.5 이상이면 중요한 변수로 본다(김현수・원유미, 2000).

교교육 사회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이며 자기개발·자기실현,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다. 참여자 스스로의 학습욕구가 가장 중요하며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 주도가 아닌 배우는 자가 주도하는 교육이라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 유형 별 인자가중치

〈표 7〉 은 각 유형에 해당하는 인자가중치를 나타낸다. 연구 참여자(P표본) 총 45명 중에서 유형1 8명, 유형2 7명, 유형3 13명, 유형4 13명, 유형5 4명으로 구분되었다. 각 유형 내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속해 있는 유형 내에서 그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또는 이상적인 사람임을 나타낸다.

<표 7> 유형 별 인자 가중치

NO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ID	인자가중치	ID	인자가중치	ID	인자가중치	ID	인자가중치	ID	인자가중치
1	3	0.7167	11	0.9531	1	1.1828	6	0.8279	18	0.9261
2	15	0.8236	26	1.1707	2	0.6311	7	0.6397	19	0.6935
3	16	0.7068	30	0.6416	4	1.0410	8	0.8376	22	0.7255
4	20	0.7747	33	2.2419	5	1.1453	17	0.6737	38	2.2285
5	21	0.6682	34	1.5909	9	1.3647	23	1.5732		-
6	32	1.2469	44	1.0630	10	1.0534	24	0.5293		
7	36	0.6550	45	2.6227	12	0.7262	25	0.6978		
8	43	0.6493		-	13	1.2359	27	1.2348		
9		-			14	1.0431	29	0.6981		
10					28	0.6411	35	0.6459		
11					31	0.5321	40	0.9567		
12					37	0.7426	41	1.0270		
13					39	0.7304	42	0.9653		

2. 유형 분석 및 해석

유형 분석은 각 유형별 동의와 비동의 진술문 중 표준점수(Z)가 +1.00이상 또는 -1.00이하의 항목[6]을 중심으로 표준점수가 높게 보이는 진술문과 낮게 보이는 진술문을 통하여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각 유형 내에서 나머지 유형의 평균표준점수와 상대적으로

6) Q방법에서는 표준점수 (Z)가 +1.00이상 또는 -1.00이하의 항목만 의미가 있는 진술문이라고 해석하지는 않는다.

독특한 차이를 보이는, 즉 특별히 더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수준이 심한 개별 진술문을 분석하였다.

가. 유형1 :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의미 추구 강조형

P표본 중에서 유형1은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유형1에 속한 P표본들이 분류한 진술문 중에서 표준점수가 ±1.00 이상만을 정리한 진술문이 〈표 8〉과 같다.

유형1에서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은 '1. 평생교육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교육이다.'이며,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35. 평생교육은 개인비용 부담이 많을수록 효과적이다.'로 나타났다. 타 유형의 평균적인 분류 수준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49. 평생교육은 개인, 사회,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은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이며,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은 '31. 평생교육은 지역시민을 위해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로 나타났다.

<표 8> 유형1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진술문	표준점수
1.평생교육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1.91
44.평생교육은 참여자 스스로의 학습욕구가 가장 중요하다.	1.88
23.평생교육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교육한다.	1.79
25.평생교육은 자기개발・자기실현을 위한 교육이다.	1.77
50.평생교육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1.53
42.평생교육은 같이(공동체, 동아리) 공부하는 것이다.	1.43
49.평생교육은 개인, 사회,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은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	1.31
26.평생교육은 사회에 능동적인 구성원이 되기 위한 교육이다.	1.29
2.평생교육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포함하는 모든 교육이다.	1.27
27.평생교육은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도와주는 교육이다.	1.24
47.평생교육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교육이다.	1.12
54.평생교육에서 강사(교수자)는 학습자가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다.	1.06
17.평생교육은 전문지식습득(자격증)을 위한 교육이다.	-1.00
5.평생교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1.02
3.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뺀 교육이다.	-1.12
51.평생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 주도해야 한다.	-1.25
33.평생교육은 개인비용 부담이 많을수록 참여율이 높다.	-1.38
14.평생교육은 부족한 학력을 보완하는 교육이다.	-1.39
41.평생교육은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다.	-1.43
37.평생교육은 개인비용 부담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다.	-1.63
35.평생교육은 개인비용 부담이 많을수록 효과적이다.	-1.80

살펴보면, 평생교육 정의는 삶 전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다. 평생교육은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하여 자기개발, 자기실현 등에 가치를 두고 수단적(예: 학력, 자격증)인 목적 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 평생교육의 책임성에서 사유재(개인 책임)에 대한 참여율, 효과성, 만족도가 좋을 것이라는 진술문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평생교육은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욕구가 가장 중요하며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교육으로써 개인, 사회,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의 교육(예: 인성교육, 예비부모교육, 시민교육, 안전교육 등)이라면 학교교육 이후라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리하면, 유형1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은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의미 추구를 강조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유형2 : 전 생애에 걸친 통합교육의 개인책임 강조형

P표본 중에서 유형2는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유형2에 속한 P표본들이 분류한 진술문 중에서 표준점수가 ±1.00 이상만을 정리한 진술문이 〈표 9〉와 같다.

<표 9> 유형2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진술문	표준점수
1.평생교육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2.22
44.평생교육은 참여자 스스로의 학습욕구가 가장 중요하다.	2.11
2.평생교육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포함하는 모든 교육이다.	1.68
25.평생교육은 자기개발・자기실현을 위한 교육이다.	1.65
54.평생교육에서 강사(교수자)는 학습자가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다.	1.62
50.평생교육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1.56
23.평생교육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교육한다.	1.49
46.평생교육에서 교육내용은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되어 결정해야 한다.	1.35
52.평생교육은 배우는 사람이 주도해야 한다.	1.11
36.평생교육은 공적지원이 많을수록 효과적이다.	-1.03
9.평생교육은 학교교육(형식교육)의 연장 교육이다.	-1.03
34.평생교육은 공적지원이 많을수록 참여율이 높다.	-1.11
38.평생교육은 공적지원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다.	-1.14
11.평생교육의 기회는 학습자의 능력(교육, 경제, 시간)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1.34
53.평생교육에서 강사(교수자)는 전문적 지식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1.39
43.평생교육은 능력 있는 강사(교수자)가 가장 중요하다.	-1.43
45.평생교육에서 교육내용은 강사(교수자)가 결정해야 한다.	-1.52
3.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뺀 교육이다.	-1.54
51.평생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 주도해야 한다.	-2.00

유형2에서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은 '1. 평생교육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

는 교육이다.'이며,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51. 평생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 주도해야 한다.'로 나타났다. 타 유형의 평균적인 분류 수준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33. 평생교육은 개인비용 부담이 많을수록 참여율이 높다.'이며,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은 '34. 평생교육은 공적지원이 많을수록 참여율이 높다.'로 나타났다.

살펴보면, 유형1과 같이 평생교육은 삶 전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교육에 동의를 보인다. 평생교육의 목적 자기개발, 자기실현을 추구하면서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함에 가치를 두고 있다. 다른 특징으로 책임성(비용)에 있어서 공적지원이 많을수록 참여율, 효과성,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를 뒷받침하듯이 상대적으로 독특함을 보이는 진술문에서는 개인부담이 많을수록 참여율이나 효과가 높다는 것에 대하여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를 보여주고 있다. 즉 개인부담이 많을수록 참여율과 효과성이 높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교수자 중심의 교육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교수자는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리하면, 유형2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은 전 생애에 걸친 통합교육으로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유형3 : 목적(가치) 추구를 위한 교육 강조형

P표본 중에서 유형3는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유형3에 속한 P표본들이 분류한 진술문 중에서 표준점수가 ±1.00 이상만을 정리한 진술문이 〈표 10〉과 같다.

<표 10> 유형3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진술문	표준점수
25.평생교육은 자기개발・자기실현을 위한 교육이다.	2.19
23.평생교육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교육한다.	1.72
24.평생교육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다.	1.63
44.평생교육은 참여자 스스로의 학습욕구가 가장 중요하다.	1.52
27.평생교육은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도와주는 교육이다.	1.46
1.평생교육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1.28
54.평생교육에서 강사(교수자)는 학습자가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다.	1.27
22.평생교육은 배움 자체가 좋아서 참여한다.	1.13
26.평생교육은 사회에 능동적인 구성원이 되기 위한 교육이다.	1.11
50.평생교육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1.10
51.평생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 주도해야 한다.	-1.10
49.평생교육은 개인, 사회,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은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	-1.15
7.평생교육은 학교가 아닌 사회, 기업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다.	-1.17
32.평생교육은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1.23

11.평생교육의 기회는 학습자의 능력(교육, 경제, 시간)에 따라 주어져 한다.	-1.24
3.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뺀 교육이다.	-1.37
5.평생교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1.38
33.평생교육은 개인비용 부담이 많을수록 참여율이 높다.	-1.60
41.평생교육은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다.	-1.66
35.평생교육은 개인비용 부담이 많을수록 효과적이다.	-1.87
37.평생교육은 개인비용 부담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다.	-2.02

유형3에서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은 '25. 평생교육은 자기개발·자기실현을 위한 교육이다.'이며,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37. 평생교육은 개인비용 부담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로 나타났다. 타 유형의 평균적인 분류 수준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7. 평생교육은 전문지식습득(자격증)을 위한 교육이다.'이며,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은 '49. 평생교육은 개인, 사회,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은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로 나타났다.

살펴보면, 평생교육은 자기개발, 자기실현, 삶의 의미, 배움, 앎을 위한 교육이라고 인식한다. 이에 더하여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동의한 진술문에서 전문지식습득(자격증)을 위한 교육, 경력 단절 극복을 위한 교육에 높은 동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유형3은 개념, 대상, 특징 등과 차이가 보일만큼 목적(가치) 추구에 대한 대부분의 진술문에 높은 동의를 보여주고 있다. 성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아니며, 배우는 사람이 주도하는 교육도 개인적 관심의 교육도 아닌 사회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개인의 비용부담이 많을수록 효과성과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진술문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교육적 특징을 들어 혼자서 하는 공부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공적 필요성으로 의무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개개인의 욕구를 기준으로 교육적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타 유형 평균 이상으로 의무교육에 대하여 조금은 거부감 또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정리하면, 유형3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은 목적(가치) 추구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라. 유형4 : 삶의 의미 추구를 위한 개인책임 강조형

P표본 중에서 유형4는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유형4에 속한 P표본들이 분류한 진술문 중에서 표준점수가 ±1.00 이상만을 정리한 진술문이 〈표 11〉과 같다.

<표 11> 유형4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진술문	표준점수
23.평생교육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교육한다.	2.15
25.평생교육은 자기개발・자기실현을 위한 교육이다.	2.02
44.평생교육은 참여자 스스로의 학습욕구가 가장 중요하다.	1.79
550.평생교육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1.67
1.평생교육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1.48
24.평생교육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다.	1.36
54.평생교육에서 강사(교수자)는 학습자가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다.	1.13
22.평생교육은 배움 자체가 좋아서 참여한다.	1.10
27.평생교육은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도와주는 교육이다.	1.06
49.평생교육은 개인, 사회,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은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	-1.06
33.평생교육은 개인비용 부담이 많을수록 참여율이 높다.	-1.09
9.평생교육은 학교교육(형식교육)의 연장 교육이다.	-1.10
45.평생교육에서 교육내용은 강사(교수자)가 결정해야 한다.	-1.13
37.평생교육은 개인비용 부담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다.	-1.22
15.평생교육은 직업능력・전직교육이다.	-1.25
14.평생교육은 부족한 학력을 보완하는 교육이다.	-1.35
35.평생교육은 개인비용 부담이 많을수록 효과적이다.	-1.37
51.평생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 주도해야 한다.	-1.40
18.평생교육은 개인이 경제적 수준을 높여 더 잘 살기 위한 교육이다.	-1.41
41.평생교육은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다.	-2.00

유형4에서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은 '23. 평생교육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교육한다.'이며,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41. 평생교육은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다.'로 나타났다. 타 유형의 평균적인 분류 수준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32. 평생교육은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이며,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은 진술문은 '18. 평생교육은 개인이 경제적 수준을 높여 더 잘 살기 위한 교육이다.'로 나타났다.

살펴보면, 평생교육은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한 교육으로써 자기개발과 자기실현을 위한 교육이라 인식한다. 참여자 스스로의 학습욕구를 바탕으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알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라 인식한다. 그러나 평생교육을 통하여 부족한 학력을 보완하거나 직업능력・전직교육과 같이 경제적・수단적 교육이라는 진술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개인비용 부담이 많을수록 참여율, 효과성, 만족도가 높음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에는 개인비용 부담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진술문에 타 유형의 평균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 유형 또한 모든 교육에서 참여자의 학습욕구는 가장 중요하며,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조력자로서의 강사(교수자) 역할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사회 속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혼자 공부하는 것은 아니며,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인 전달 교육은 원하지 않고 있다. 정리하면, 유형4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은 삶의 의미 추구를 위한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마. 유형5 : 삶의 의미 추구를 위한 공공책임 강조형

P표본 중에서 유형5는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유형5에 속한 P표본들이 분류한 진술문 중에서 표준점수가 ±1.00 이상만을 정리한 진술문이 〈표 12〉와 같다.

유형5에서도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은 '23. 평생교육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교육한다.'이며,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33. 평생교육은 개인비용 부담이 많을수록 참여율이 높다.'로 나타났다. 타 유형의 평균적인 분류수준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36. 평생교육은 공적지원이 많을수록 효과적이다.'이며,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은 '48. 평생교육은 개인을 위한 교육이다.'로 나타났다.

<표 12> 유형5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진술문	표준점수
23.평생교육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교육한다.	1.70
36.평생교육은 공적지원이 많을수록 효과적이다.	1.62
50.평생교육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1.60
25.평생교육은 자기개발·자기실현을 위한 교육이다.	1.47
34.평생교육은 공적지원이 많을수록 참여율이 높다.	1.46
44.평생교육은 참여자 스스로의 학습욕구가 가장 중요하다.	1.40
31.평생교육은 지역시민을 위해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1.37
30.평생교육은 국가발전에 기여함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1.16
22.평생교육은 배움 자체가 좋아서 참여한다.	1.09
3.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뺀 교육이다.	-1.03
14.평생교육은 부족한 학력을 보완하는 교육이다.	-1.06
7.평생교육은 학교가 아닌 사회, 기업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다.	-1.09
51.평생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 주도해야 한다.	-1.27
16.평생교육은 경력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이다.	-1.31
37.평생교육은 개인비용 부담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다.	-1.49
48.평생교육은 개인을 위한 교육이다.	-1.49
35.평생교육은 개인비용 부담이 많을수록 효과적이다.	-1.55
32.평생교육은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1.70
41.평생교육은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다.	-1.94
33.평생교육은 개인비용 부담이 많을수록 참여율이 높다.	-1.97

살펴보면, 평생교육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며, 체계적인 운영(제도와 환경)과 공적지원이 많을수록 참여율과 효과성이 높다고 인식한다. 개인비용 부담에 대

한 참여율, 만족도, 효과성에 동의하지 않는 반면, 지자체부담은 물론 국가 차원의 지원까지의 모든 공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효율성에 동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의 삶의 질이 그 사회의 삶의 질과 같고 시민의 성장이 그 사회의 성장이므로 모든 공적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술문에 동의하고 있다.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학습 형성을 이야기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도 공적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한다. 정리하면, 유형5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은 삶의 의미 추구를 위한 공공책임을 강조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유형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각 유형별로 정의, 목적, 책임성, 주체에 관한 항목에서 동의(+)와 비동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만 각 유형별 특징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1.00 이상의 진술문 중 동의와 비동의의 3순위 진술문 항목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표 13> 모든 유형별의 동의와 비동의 수준의 특징 분류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동의(+)	비동의(-)	동의(+)	비동의(-)	동의(+)	비동의(-)	동의(+)	비동의(-)	동의(+)	비동의(-)
정의	1.전생애 교육	-	1.전생애 교육 2.통합교육	3.학교교육 제외	-	* *5.성인대상 교육*	-	-	-	-
목적 (가치)	23.삶의 의미 교육	-	-	-	25.자기개발·자기실현 교육 23.삶의 의미 교육. 24.알고자 하는 교육 * *17.전문지식 습득교육,* *16.경력단절 극복교육*	-	23.삶의 의미 교육 25.자기개발·자기 실현 교육	* *18.개인경제 수준 향상교육*	23.삶의 의미 교육	-
책임성 (비용)	-	35.사유재 효과적 37.사유재 만족적 * *31.지자체비용부담*	* *33.사유재 참여적* *35.사유재 효과적*	* *34.공공재참여적*	-	37.사유재 만족적 35.사유재 효과적	* *32.사적부담 원칙*	-	36.공공재 효과적 * *34.공공재 참여적*	33.사유재 참여적 32.사적부담 원칙
주체	44.자기주도 학습력 * *49.부분 의무교육화*	41.개인학습	44.자기 주도 학습력	51.교수자 중심 45.내용 강사(교수자)결정	-	41.개인학습 * *49.부분 의무교육화*	44.자기주도 학습력	41.개인학습 51.교수자중심	50.제도와 환경 조성	41.개인학습 * *48.사적 교육*
명명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의미 추구 강조형		전 생애에 걸친 통합 교육의 개인책임 강조형		목적(가치) 추구를 위한 교육 강조형		삶의 의미 추구를 위한 개인책임 강조형		삶의 의미 추구를 위한 공공책임 강조형	

※ '*' 아래내용은 각 유형에서 타 유형의 평균값과 상대적 독특함을 보이는 항목 표시.

Ⅴ. 평생교육 개념 요소별 해석

본 연구에서 평생교육 관련 진술문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성인학습자를 유형화시키고,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형성된 유형 內의 진술문을 바탕으로 재분류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요소별 인식에 대하여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진술문 중 표준점수(Z)가 ±1.00 이상인 진술문을 바탕으로 하였다.

1. 평생교육 정의에 대한 인식

가장 먼저 평생교육의 개념을 알아 볼 수 있는 진술문을 바탕으로 참여한 성인학습자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5개의 유형 중에서 4개의 유형에서 평생교육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교육임에 동의하며 그 중 2유형은 평생교육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에도 동시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뺀 교육이란 정의에는 4개의 유형이 동의하지 않았다. 유형1을 제외하고 학습자 능력별 차등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함에 동의하지 않으며, 성인을 위한 교육에도 비동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헌법에는 평생교육을 진흥함에 있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서는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을 구분 명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으로 정의한다. 국가차원의 정의에서도 평생교육과 사회교육과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사회교육(학교교육을 제외하는 교육)적 의미에 좀 더 가깝게 명시 되어있다. 실천현장 또한 학교교육 이후의 성인교육으로써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애 단계 면에서 볼 때 성인교육은 평생교육의 한 단계이지만 성인교육은 평생교육의 본질적 부분이기도 하다(이희수・조순옥, 2005: 115-116). 평생교육이라는 단어가 전달하는 의미가 광의 교육을 포함하고 있어 개념을 인식함에 있어서 혼선을 주고 있다.

정리하면, 성인학습자의 인식 속에 평생교육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으로써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을 말하고 있다. 즉, 평생교육 정의는 법규(법률)상 '평생교육'이란 단어로 명명하고 있으나 내용은 사회교육(학교교육을 제외하는 교육)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안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즉, 법규(법률)상 정의에서 학교교육의 정규과정을 제외되어 있는 것은 국가가 성인학습자의 통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개념의 혼선을 자처하고 있다.

2. 평생교육의 목적(가치)에 대한 인식

평생교육의 목적(가치)을 알아 볼 수 있는 진술문을 바탕으로 성인학습자의 인식을 살펴보면, 5개의 유형 모두가 평생교육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며 자기개발, 자기실현을 위한 교육임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3개의 유형에서 평생교육은 배움 자체가 좋아서 참여하며 사회와 소통을 도와주는 방법으로써의 교육이라고 하였다. 2개의 유형에서 평생교육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사회에 능동적인 구성원이 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 참여한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목적(가치)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교육, 자기개발, 자기실현을 위한 교육에 가치를 두고 있다. 즉 UNESCO의 '학습사회론'에 가까운 가치를 추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 실천현장에서는 OECD가 추구하는 개인의 발달, 사회적 결속, 경제적 성장을 위한 학습지역 형성을 주하는 '학습경제론'적 정책 실천을 체감하게 된다.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의 안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발전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느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좋고 나쁨을 말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지원하는 실천은 또 다른 결핍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실천의 형평성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평생교육의 책임성(비용)에 대한 인식

평생교육의 책임성을 알아 볼 수 있는 진술문을 바탕으로 참여한 성인학습자의 인식을 살펴보면, 3개의 유형에서 평생교육은 개인비용 부담이 많을수록 참여율, 효과성,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3개의 진술문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3개의 유형 중 1개의 유형은 개인부담에 모두 참여율, 효과성, 만족도가 높을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성장을 위한 선택적 교육이므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진술문에 동의를 보여 주고 있다. 또 다른 1개의 유형에서는 공적지원이 많을수록 참여율, 효과성,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1개의 다른 유형에서는 특이한 유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공적지원에 대해 모든 진술문에 동의하고 있으면서 개인비용 부담에 대한 모든 진술문에도 동의하지 않음이 동시에 나타났다. 평생교육의 공적책임성(비용)에 매우 민감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중 공적지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4개의 유형에서 사적부담을 통한 참여율, 효과성, 만족도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효율성과 관계없이 개인의 성장과 관련지어 책임성에 대한 사적부담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공적부담에 대한 책임성은 꾸준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적부담에 대한 효율성은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이면을 보여주고 있다. 사적부담의 참여율과 효과성은 동의하고 있으면서 만족도는 기대하지 않고, 공적부담의 참여율은 불안해하면서도 효과성과 만족도는 기대하는 의견도 있다. 공적 책임성을 강조한 유형에서는 모든 상황을 감안하고 참여기회의 평등성, 형평성을 위하여 공적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교육에서 책임성(비용, 서비스)에 대한 성격을 정리하기는 복잡하여 쉽지 않다. 의무교육이나 교육복지는 공적부담의 교육서비스로 본다고 해도, 평생교육을 거론함에 있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평생교육 참여자들이 교육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 가에 따라 교육서비스에 대한 판단에도 그 영향이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즉 평생교육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교육인지, 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이냐에 대한 이면적 고민만큼, 공공재(공적부담)와 사유재(사적부담)에 있어 서로의 견제와 협력으로 팽팽한 관계를 볼 수 있다.

4. 평생교육의 주체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의 주체를 알아 볼 수 있는 진술문을 바탕으로 참여한 성인학습자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5개 유형 모두에서 평생교육은 참여자 스스로의 학습욕구가 가장 중요하며,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함에 동의하고 있다. 4개의 유형에서는 평생교육에서 강사(교수자)는 학습자가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에 동의하고, 이를 뒷받침하듯 모든 유형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주도해서는 안 되며, 교육내용 또한 강사(교수자)가 결정해서는 안 되고,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1개의 유형을 제외하고는 개인, 사회,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도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형식적인 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학습자를 미성숙자 또는 부족한 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의 선한 의도가 있다하더라도 교육 안에서의 권력적 비대칭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평생교육은 인간은 적극적 학습동물로서 학습능력과 함께 학습자발성을 갖추고 있다(김신일・박부권, 2005: 31)고 보며, 삶의 과정에 언제 어디서나 항상 무언가를 배우며 동시에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배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누구나 배우는 자이며 가르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교육주의 관점은 불합리하다 또는 학습주의 관점만이 대안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수자 중심보다 학습자 중심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누구도 자신

의 학습, 자신의 인간성장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에 대립하여 강제로 교육하거나,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지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김신일・박부권, 2005: 32).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참여자 스스로의 학습욕구가 가장 중요하며,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하고 교수자는 학습자가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성인학습자의 의식 속에도 학습주의 관점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근원적인 바람이 나타나고 있다.

Ⅵ. 결론

평생교육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인식 유형을 분석해보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형성된 유형과 그 유형별 특성, 성인학습자가 갖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요소별(정의, 목적, 책임성, 주체)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된 인식 유형은 5개 유형으로 유형1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의미 추구 강조형, 유형2의 전 생애에 걸친 통합교육의 개인책임 강조형, 유형3의 목적(가치) 추구를 위한 교육 강조형, 유형4의 삶의 의미 추구를 위한 개인책임 강조형, 유형5의 삶의 의미 추구를 위한 공공책임 강조형이다.

성인학습자가 갖고 있는 평생교육 안의 개념요소들(정의, 목적, 책임성, 주체)의 인식을 살펴보면, 평생교육 정의는 법규(법률)상 '평생교육'이란 단어로 명명하고 있으나 내용은 사회교육(학교교육을 제외하는 교육)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안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학습자는 평생교육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통합적인 의미로 인식하고 있어, 법규(법률)상 정의에서 학교교육의 정규과정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성인학습자들의 통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UNESCO의 학습사회론의 이상향과 OECD의 교육시장에 대한 학습경제론을 활용해 왔다. 어느 한 쪽을 지나치게 지원하는 실천은 또 다른 결핍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실천의 형평성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목적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교육, 자기개발, 자기실현을 위한 교육에 가치를 두고 있다. 즉 UNESCO의 학습사회론에 가까운 가치를 추구함을 알 수 있다.

교육에서 책임성(비용, 서비스)에 대한 성격을 정리하기는 복잡하고 쉽지 않다. 평생교육을 거론함에 있어서는 책임성은 많은 논쟁이 있다. 평생교육 참여자들이 교육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교육서비스에 대한 판단에도 그 영향이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타

내고 있다. 평생교육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교육인지, 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인지에 대한 이면적 고민만큼, 공적부담과 사적부담에 있어서 견제와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의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참여하는 욕구의 중요성과 같이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육성·지원하여 열린사회 지향의 기반이 되었다.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학습자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였지만 학습자에 대한 방임도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학습자는 가르치는 활동보다 배우는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인간은 자발적 학습능력을 갖고 있으며 학습의 목표가 학습자의 삶에 내재되어 있고 교수자와 학습자는 서로 상호학습을 하는 관계로 기존의 교육자(교수자) 중심보다 학습자 중심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 목적(가치), 책임성, 주체에 대하여 국가·사회적 인식과 성인학습자의 동의 수준을 점검해 본 결과, 동의 수준이 같은 것도 그렇지 못한 것도 존재하고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과 소통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평생교육대상인 성인학습자의 상호작용과 소통도 절실히 요구될 필요성이 있다. 모든 정책추진에 있어 주체와 대상자가 비슷한 이해수준을 갖추었을 때 그 효과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도수(2010). **한국 사회교육의 기저.** 서울: 학이시습.

김동위(1997). 평생학습의 사회학적 고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의 방향. **교육연구,** 15, 5-26.

김성길(2004). UNESCO와 OECD의 평생교육전략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평생여가교육의 가능성. **연세교육연구,** 17(1), 55-71.

김신일(1984). **뒤르껨 교육이론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_____(2012). **교육사회학.** 파주: 교육과학사.

김신일・박부권(2005). **학습사회의 교육학**. 서울: 학지사.

김순은(2010). Q 방법론의 이론과 철학.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1-25.

김종서・김승한・황종건・정지웅・김신일(1987). **평생교육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김종서・김신일・한숭희・강대중(2014). **평생교육개론.** 파주: 교육과학사.

김한별(2015).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김헌수·원유미(2000). **Q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김홍규(1992). 주관성 연구를 위한 Q 방법론의 이해. **간호학 논문집**, 6(1). 1-11.

_____(2008). **Q 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박부권(2002). 교육주의와 학습주의를 넘어서. **한국교육사회학회,** 42, 7-28.

오혁진(2002). 평생교육경영학의 지향점과 연구과제. **평생교육학연구,** 8(1), 153-176.

_____(2009). 개념 정의 분석을 통한 평생교육학과 사회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5(4), 275-297.

_____(2011). 1990년대 말 평생교육법 제정 과정 분석을 통한 평생교육 개념 혼란의 기원과 논리 검토. **평생교육학연구,** 17(1), 119-142.

_____(2012). **평생교육경영학**. 서울: 학지사.

윤여각(2015). 평생교육 개념의 재검토: 유네스코의 랑그랑・포르・다베・들로 보고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1(4), 31-53.

이은영(2017). Q방법론을 활용한 평생교육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인식 유형 분석.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이홍우(2014). **교육의 개념.** 서울: 문음사.

이화식(2013). 비판적 교육학에 근거한 비판적 시각 문해교육. **조형교육,** 48. 412-433.

이희수・안동윤(2007). HRD 패러다임 논쟁사에 나타난 평생교육과 HRD의 관계: 경쟁자인가, 협력자인가?. **평생교육학연구,** 13(1), 77-102.

이희수・조순옥(2005). UNESCO 세계성인교육회의가 평생교육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1(1), 115-144.

이희수(2009). 평생교육 삼두체제의 기원: UNESCO의 평생교육, OECD의 순환교육, EC의 영

속교육. **한국HRD연구,** 4(3), 98-128.
임해규(2011). **교육에서 학습으로-학습권과 그 보장 원리.** 파주: 교육과학사.
정민승(2002). 평생학습 패러다임에서의 사회교육자(교수자): 위상과 역할. **평생교육학연구,** 8(2), 41-60.
정지웅・김지자 (1986). **사회교육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정지웅(1997). 사회교육의 개념과 사회교육학의 과제 탐구. **사회교육학연구,** 3(2), 1-18.
차갑부(2012). **평생교육론: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_____(2015). **평생학습자본의 인무학적 통찰: 기초자본을 넘어 촉진자본으로.** 파주: 교육과학사.
한숭희(1998). 성인교육의 비판적 담론과 한국사회교육연구. **사회교육학연구,** 4(2), 23-50.
_____(2002). 평생교육론: 거대담론과의 결별과 학문으로서의 자기 탐색의 계기 마들기. **평생교육학연구,** 8(1), 221-245.
_____(2003). 시장인가 공적 영역인가: 참여정부의 평생교육정책의 핵심논제, **평생교육학연구,** 19(3), 1-26.
_____(2009). 화성에서 온 사회교육, 금성에서 온 평생교육. **평생학습사회.** 5(1). 1-18.
Brookfield, S. (2009). **성인학습을 위한 비판이론**[*The Power of critical theory for adult learning and teaching*]. (기영하・김선주・조윤정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5에 출판)
Brown, S. (1980). *Political subjectiv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Eduard C. Lindeman(2013). **성인교육의 의미**[*Meaning of adult education*]. (강대중・김동진 역). 서울: 학이시습. (원전은 1926에 출판).
Freire, P.(2007). **자유의 교육학**[*Pedagogy of freedom: ethics, democracy, and civic courage by Paulo Freire*]. (사람대사람 역). 서울: 아침이슬. (원전은 1998에 출판).
Schuetze, H. G. & Casey C.(2006). Models of lifelong learning: progress and barriers on the road to a learning lociety. *Compare, 36*(3), 279-287.

· 논문 접수 2017. 2. 1 / 수정본 접수 3. 16 / 게재 승인 3. 22

· 이은영 : 충청대학교에서 사회복지상담학과를 졸업하고 공주대학교 교육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KACE청주(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학습공동체, 비판이론, 지역사회교육운동, 사회교육 등임.

· 박상옥 :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펜실바니아주립대학교에서 성인교육으로 박사 학위 취득 후 평생교육진흥원을 거쳐 현 공주대학교 교육학과에 재직하고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학습동아리, 마을교육공동체, 비판이론, 여성주의 등임.

Abstract

An Analysis on Awareness Type of Adult Learners of Lifelong Education with Q Methodology

Lee, Eun Young(Cheongju Association for Community Education)
Park, Sang Ok(Kongju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in Korea is positioned in various ideologies. The meaning of lifelong education can be identif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of definition, purpose, responsibility, and subject : Thus,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adult learners engaging in lifelong education perceive it and how various factors associated with lifelong education are perceived by them (adult learners) find its purpose and meaning in check regular citizens' level of consent for national-level understanding. I have analyzed how the perceptions of lifelong education among adult learners are patterned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onceptual factors of lifelong education (definition, purpose, responsibility and subject) and how adult learners identify those individual conceptual factors based on the Q methodology.

The study has identified five different types of perception. Type1 emphasizes seeking the meaning of life throughout one's lifetime. Type 2 emphasizes personal responsibility for integrated education throughout one's lifetime. Type 3 emphasizes the education in pursuit of purpose (value). Type 4 emphasizes personal responsibility for pursuit of the meaning of life. Finally, Type 5 emphasizes the public responsibility for the pursuit of the meaning of life. seeking the value close to the learning society theory that seeks a meaningful life as the purpose of education, the issue of responsibility tended to be perceived as the check and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goods, and humans have voluntary learning capability and implied learning goals.

* Key words: concept of lifelong education, learning society theory, learning economy theory, public goods, private goods, educationism, learningism